

“맘 놓고 떠날 수 없는 청춘들에 여행 선물할 것”

당일치기 게릴라 여행 ‘하루사이’ 진행 동신대 김연수씨

“마음 놓고 떠날 수 없는, 즐길 수도 없는 청춘들에게 여행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김연수(24·동신대 한의예과 본과 3년)씨는 광주지역 대학생 42명을 모아 당일치기 ‘게릴라 여행’을 떠나는 ‘하루사이(42)’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지역 대학생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42명이 선착순 참가해 국내를 여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하루사이’ 프로젝트 명칭은 여행 동반자들이 ‘하루사이’에 ‘남’에서 ‘우리 사이’가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관광巴士에 탈수 있는 정원 ‘42’라는 의미도 있다.

“여행을 정말 좋아해서 방학이면 여행을 자주 떠났어요. 그런데 차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고 싶었던 곳을 빼놓고 돌아왔던 적도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비용이 부담됐죠. 학기 중에도 부담없이 여행을 떠날 방법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하루사이’ 여행에 참여하는 비용은 대

광주지역 대학생 42명 대상

7개조로 나눠 각자 여행 즐겨

친구 사귀고 힐링 기회됐으면

약 1만~3만원 남짓.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저렴하고 관광코스를 따라 움직일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또 여행지에 도착하면 6명씩 7개 조로 나뉘어 움직인다. 이후 일제 간섭하지 않고 각자 ‘순수한 여행’을 즐긴다. 행동의 제약이 따를 수 있는 패키지 여행상품과 차별화된 부분이다.

매번 여행지에 따라 참가비가 달라지지만 대부분 대중교통 비용의 절반 정도다. 경비가 저렴한 탓에 누군가 갑작스레 일정을 취소하거나 정원을 미처 채우지 못해 낙석지 못한 형편에도 자신의 사비를 보편적도 있다.

지금까지 순천과 무주, 춘천 등 10여차



레 여행을 다니면서 자연스레 친구도 생겼고, 참가자들 사이에서 연인이 탄생하기도 했다.

김씨는 “취업난과 학업에 매달려 요즘 청년들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물론 청춘의 특권인 사랑과 연애마저 포기하는 게 현

실”이라며 “‘하루사이’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해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연애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하루사이’는 지역 대학생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정원의 두 배를 웃도는 사람들이 몰리기도 했다. 현재 대학생 신분인 탓에 ‘하루사이’를 자주 운영할 수 없지만 매주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김씨의 다짐이다.

“광주청년들이 ‘주말에 뭐하지’라고 고민할 때 ‘하루사이’를 떠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잡았으면 좋겠어요. 청춘들에게 부담없이 ‘바람쐴라’ 갈 수 있는 창구가 됐으면 합니다.”

한편 김연수씨와 여행을 떠나고 싶은 광주지역 대학생들은 페이스북 페이지 ‘하루사이’(https://www.facebook.com/42wanted)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박근하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



광주일보, 김영란법 바로알기 특강

광주일보는 26일 전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광주시 동구 금남로 무등빌딩 13층 광주스마트모바일앱개발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바로알기 특강’을 실시했다.

법무법인 이우스의 김정호(44·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와 의미, 언론사 종사자의 적용범위 등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김영란법은 부탁하고 들어주는 관습 또는 문화를 개선하자

는 취지가 강하게 들어있다”면서 “언론인 등 대상자들은 ‘3(식사)·5(선물)·10(부조)’만 기억하는데 그 이하의 금액이라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을 경우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전남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지부 사무처장 역임한 뒤 부지부장

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

인사

◆조선대학교

▲기획조정실장 전의천 ▲교무처장 김하림 ▲대외협력처장 이계만 ▲연구처장 이인화 ▲인사혁신처장 김종래 ▲입학처장 이범규 ▲취업학생처장 윤갑근 ▲기획조정부실장 김병욱 ▲산학부처장 김대현 ▲연구부처장 박종철 ▲양성평등센터장 김택호 ▲중앙도서관장 김재수 ▲언어교육원장 이승권 ▲평생교육원장 신대운 ▲정보전산원장 변재영 ▲박물관장 이기길 ▲미술관장 김익모 ▲보건진료소장 박준희 ▲민주화운동연구원장 김춘환 ▲학부교육선도사업단장 홍성금 ▲LINC사업단장 고진석 ▲대학원 부원장 김경자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3기 친선 골프대회 성료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3기 친선 골프대회가 지난 25일 화순 엘리트CC에서 열렸다. 김여수 광주일보 사장과 원우 20여명이 참석했다.

소방관·의사가 식당서 심정지 40대 신속한 처치로 구해

광주 119구조단 박형주 부팀장·전남대병원 조용수 과장

광주의 한 식당에서 심정지(心停止)로 쓰러진 40대 남성이 주변에 있던 의사와 소방관의 신속하고 사려깊은 처치로 생명을 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회사원 A(42)씨가 광산구 신장동의 한 횡집에서 쓰러진 것은 지난 24일 오후 9시께. 마침 식당에는 광주119특수구조단 박형주(43·사진 왼쪽) 부팀장과 전남대병원 조용수(36·오른쪽) 응급의학 과장이 지난해 봄 내발 대치진 당시 구조활동에 관한 얘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고 있었다.

쿵 소리를 듣고 뛰어진 이들은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고 A씨의 상태를 살폈다. 환자에게 계속 “우리는 소방관과 의사입니다. 안심하세요”라며 말을 건네고 응급처치에 나섰다.

1분여 흘러 환자 얼굴마저 창백해지자 박 부팀장이 심폐소생술을 할 것을 조 과장에게 권했지만 그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한다. 자칫 성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할 경우 환자의 건강에 되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배경에서다.

환자 A씨는 이내 의식을 되찾은 뒤 집으로 가려고 했다. 하지만, 조 과장은 끝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응급실에 전화를 하고 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받을 것을 권했다. 검사 결과 A씨는 뇌종양으로 진단됐고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경우 무난히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팀장은 “조용수 과장이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했다고 한다”면서 “사려깊은 시술과 더불어 끝까지 환자를 병원으로 안내해 정밀진단 받도록 하는 모습은 모든 의사들의 귀감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남대병원, 몽골서 의료관광설명회

전남대병원(병원장 윤택림)이 최근 광주시가 몽골에서 주최한 의료관광설명회에서 의료설명회를 실시했다.

유명하 전남대병원 진료처장·안영근 기획조정실장·박상우 국제메디컬센터장 등 5명이 참가했다.

전남대병원은 설명회와 수술시연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뛰어난 의료수준과 최첨단 의료시설을 집중 홍보했다.

안영근 실장은 몽골 제1병원에서 현지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심장질환 환자 수술시연을 펼쳤다.

〈사진〉
유명하 진료처장은 “몽골 방문을 통



해 전남대병원을 비롯한 광주지역 의료기관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면서 “전남대병원은 몽골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러시아·중국 등 아시아 극동지역 의료진출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한중문화협회광주지회·中 사천성 성도지회 협약



(사)한중문화협회광주지회(회장 안상록)와 중국 사천성 한중문화협회 성도지회(중국회장 대충준·성도지회장 박원서)는 지난 25일 광주 프라도호텔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경제·문화·교육영역 등 상호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사)한중문화협회광주지회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하운(충남 서산 치기공사 대표)·이혜숙씨 장남 원범군 정영수(전남대 부동산학 전담강사)·황혜성씨 장녀 다은양=10월3일(월) 오후 1시 충남 서산시 아르델웨딩컨벤션, 당일 오전 9시 광주시 남구 빛고을교회(백운광장 버스정류장)·9시30분 전남대 치과병원 앞 전세버스 출발.
▲김준호·신옥자씨 장남 현진군 안숙·정진아씨 차녀 형원양=10월8일(토) 낮 12시 광주시 광산구 승정중앙교회.

동문회

▲비아초등학교 총동문회(회장 김석원) 한마당 체육대회=10월3일(월) 오전 10시 30분 모교 대운동장, 문의 010-3624-2378.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

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365일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광주서구중독관리센터 열린마음상담센터 무료상담=서구지역 중독 및 정신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상담 금호복지관 062-383-0205. 쌍촌복지관 062-373-0207. 쌍촌시영복지관 062-373-0203.

▲무로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엘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보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숙식보조 062-

232-1313.

▲광주장애인인권센터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모집

▲광주 동구자원봉사센터 재능봉사단 양성 교육생 모집=10월12일(수)까지 주 1~2회 봉사활동 가능한 남·녀 시민 모집. 동화구연·풍선아트·네일아트 등 10월 중순 이후 교육시작, 문의 062-228-1365.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각화문화회집 프로그램 회원=바이올린교실(매주 토요일 오후 1시~오후 4시 30분), 하모니카(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오후 3시), 노래교실(매주 월요일 오후 3시~오후 4시30분) 등 수시 회원 모집, 광주 북구 각화동 480-41번지 062-265-9337.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 대상 아동=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을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만 12세 이하) 언어발달 평가, 언어발달교육(주 2회·1회 40분) 상담(무료) 광주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63-2963.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전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불행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한 혼성 합창단 모집. 062-675-5955.

▲전남담양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회원=담양거주자이면서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근무, 식품유동, 도자기, 집수리 등. 061-383-9909.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원=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 출신 환영. 010-3608-1060.

▲사단법인 효사랑넷 봉사단=품 교육에 관심있는 회원 교육생 모집. 매주 금요일. 062-369-1230.

부음

▲류재벽씨 별세 종남(강강수월래 일산점)·종성(전 광주시청 대변인·남경건설 사장)·종오(자영업)씨 부친상=발인 27일(화) 광주 그린장례식장 본관 4층 062-250-4455.

▲김임심씨 별세 이종범·상범·중준·소영씨 모친상 박금희·정정숙·이선화씨 시

모상 박정훈씨 빙모상=발인 27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정정자씨 별세 하대봉·태상·정인(명화)·계화씨 모친상 최경주·김기주·조미씨 시모상 강민광·문신호씨 빙모상=발인 27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謹

삼가 故人の 冥福을 빕니다

弔

301호 故박철호 님(남/88세)

子/子婦 : 박주원/조영숙, 박시원/최은남, 박재원
女/婿 : 박혜숙/장영택, 박영신/김석홍
발 인 : 9월 27일
장 지 : 망월묘역

401호 故최춘례 님(여/81세)

子/子婦 : 김철형/이미숙, 김철진, 김영호/유옥선
女/婿 : 김순영/권상호
발 인 : 9월 27일
장 지 : 영락광묘역

402호 故임인순 님(여/76세)

子/子婦 : 김철형/이미숙, 김철진, 김영호/유옥선
女/婿 : 김순영/권상호
발 인 : 9월 27일
장 지 : 망월아산영

102호 故문정귀 님(여/91세)

子/子婦 : 김정수/서정순, 정만/임희례
女/婿 : 김희례/박동문
발 인 : 9월 27일
장 지 : 고동호화선영

孝 金 浩 長 래 식 장

마음까지 댄 안한
대표이사 구제길

문 의 (062)227-4000

http://www.mykumho.com